

지역 매 아리

고창 해리면, 취약구간
제설 자원봉사 줄이어

고창군 해리면이 며칠간 쉬지 않고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눈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 최소화해 나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고창 해리면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31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해리면은 제설봉사단 트랙터 13대와 주민들의 장비 협조로 덤프터, 굴착기를 투입해 미용도로와 면 소재지 주요도로, 제설 취약구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벌였다.

또 이장단 협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결빙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순찰하고 열화갑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근숙 해리면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제설봉사단, 자율방재단 등 제설 장비를 보유한 주민들이 직접 눈 치우기에 발 벗고 나서 주민불편을 줄이고 있다"며 "한파가 계속되고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새해 벽두
해양오염사고 현장행정 강화

권익현 부안군수가 2019년 기해년 새해 벽두부터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장을 찾아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일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위도면 벌금해수욕장과 진리 앞 해안가, 미영굴, 벌금-정금구간 등을 찾아 방제작업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현재 위도면 벌금해수욕장 등에는 지난 1일부터 타르블 형태의 동전 크기만한 기름덩어리가 확인되고 있다.

이 기름덩어리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서 발생한 예인선 좌초시 누출된 연료유(벵커A)가 조류의 영향에 따라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위도면사무소, 해양경찰, 지역주민 등은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해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피해확인지역에 대한 방제작업과 함께 추가 발생 우려지역에 예방활동 강화, 주변어장 피해조사 등 피해최소화 및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름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방제작업과 함께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생명 문화 기반구축 총력전

유기상군수, 고창문화의전당서 청원 · 군민 1000여명과 울력 시무식 가져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군민과 함께하는 '2019년도 울력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2일 고창군은 오전 10시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유기상 군수와 각 실과 소·읍면장 전 직원과 일반 군민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었다.

특히 이날 시무식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무식'을 테마로, 참여를 원하는 남녀노소 모든 군민들에게 행사장을 개방했고, 신년사와 군정방향보고 이외 시낭송과 군민대표 군정제언(고창군에 바란다)도 진행됐다.

올해 고창군정 철학 사자성어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이다. 모양성안 동헌의 현판도 '평근당(平近堂)'으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숙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유 군수는 새해 신년사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울력행정'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농생명 식품산업 함께 살려내기 ▲풍격 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중심지 함께 만들기 ▲자식농사 잘 짓고, 사남 잘 키우는 고창 위한 울력 ▲나눔과 봉사로 초출한 복지도시 고창, 손잡고 함께하기 등을 제안했다.



고창군이 지난 2일 군민과 함께하는 '2019년도 울력 시무식'을 가졌다.

또 고창 농산물 브랜드 통합 추진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농지 개량사업 시범추진, 농민수당 지원, 가지 계약재배 시범실시 등이 추진된다.

'풍격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중심지 함께 만들기' 사업으로는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고창음성'·'무장음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한 음성문화 테마관광지 육성,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방·의향·인향 고창만의 색깔을 더한 성공적인 한국 지역도시 준비, 지역 초등학생 가방지

원, 청소년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축제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자식농사 잘 짓고, 사남 잘 키우는 고창' 만들기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희망나눔길 신설'을 통한 나눔과 봉사 민간협업체계 구축, 일반산업 단지의 조속한 공사 준공과 투자공모, 지역화폐 상용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매 월 군민 결의로 찾아가는 이동군청이 계속되고, 주민참여예산 등 군민의 군정참여를 혁신적으로 늘려 지방자치의 교과서를 써가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공정한 부안' 조성

부안군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4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부안군은 시무식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해 최하위권이던 청렴도가 3단계나 수직 상승해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무식에서 "갈치래와 형식을 탈피한 일 중심의 생동적이고 실속있는 행정을 통해 새로운 부안 실현의 동력을 확보하

고 속도를 내겠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과 부안군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현 부안군수는 시무식에 앞서 서립공원 호국영렬탑을 찾아 간부공무원과 부안군의회 이한수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를 진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과 함께 '정읍으로 정감시대' 출발 다짐

정읍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해년 새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유 시장은 '줄탁동시'를 신년 사자성어로 정하고, 시민과 상생화합을 통해 모두가 힘을 기울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라는 목표를 성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읍시청 시무식은 2019 시정비전과 시민 제마디의 소망을 담은 새해 희망 메시지 상영, 신년사 낭독, 새내기 공무원과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떡 케이크 커팅으로 진행됐다.

유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19년은 그동안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을 목표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는 중요

한 시기라고 말하며, 시정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가에 미소, 나아가 행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정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일 첫 일정으로 새벽 5시 대안여객을 방문, 2019년 첫 운행을 나서는 버스 기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버스 단일요금제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양사업 통해 동학농민혁명 성지의 위상 정립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표창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열린 '2018 종무식'에서 금 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에 공이 많은 단체와 시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공청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활동한 정읍시(양력 5월 11일)로 선정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황도현 정읍시장이 국가기념일로 선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는 물론 좀 더 다양한 선양사업과 지원사업을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선정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기념일 행사 추진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읍 차원의 선양사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자 성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송년결산의 자리에서 기념일 선정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성열 국회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 이수현 정읍시 문화체육과장에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이 기해년 새해아침을 맞아 2일 충혼탑을 방문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을 영전에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안녕 기원

유진섭 정읍시장, 기해년 충혼탑 참배 가져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기해년 새해아침을 맞아 2일 충혼탑을 방문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을 영전에 참배하며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참배는 2019년 기해년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활기찬 시장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충혼탑(거북한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상징하기 위해 1969년 군인, 공무원, 학생들의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또한 위패봉안소를 세워 3,419명의 위패를 봉안했다. 매년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는 등 호국안보와 애국애족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안보 교육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충혼탑은 정읍시 충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충혼탑 참배는 유진섭 시장의 헌화·분향을 시작으로 김인태 부시장, 국·단·소·직속과 장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으며,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

유 시장은 "2019년 기해년이 변화와 혁신으로 '더불어 행복', '더 좋은 정읍' 건설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에도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인 경영의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